



행복한 성당, 하와이 한인성당

하와이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Taegon Oratory

- 주임신부 : 권지훈(베드로)
- 사목회장 : 김성연(야고보)
- 사 제 관 : (808) 422-1040
- 사 무 실 : (808) 422-1010

◦ 성당 주소 : 511 Main St, Honolulu, HI 96818 ◦ 성당 이메일 : honolulukcc@gmail.com
◦ 홈페이지 : <https://standrewkimhawaii.org>

제2262호

2025년 8월 17일(다해)

미사 안내	평일	화, 수, 금 : 오전 10:30 목 : 오후 7:00 (성체 강복: 매달 첫번째 목요일 7시 미사 중)	주일	토 : 오후 4:00 일 : 오전 06:30, 10:30 오후 4:00(St. Peter & Paul 성당, 매월 셋째 주 마우이 공동체 오후 2:30)
연령회	병자성사나 봉성체를 희망하시거나 임종 환자 또는 망자 발생 시에는 신속히 연령회로 연락 바랍니다. - 김미아 헬레나 Cell : 808.291.7811			



오늘의 미사

연중 제20주일

▶ 1독서 : 예레미야서 38,4-6.8-10 ▶ 화답송 : 주님, 어서 저를 도우소서. ▶ 2독서 : 히브리서 12,1-4	▶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 ▶ 복음 : 루카 12,49-53
--	---

① 8월 17일(일)은 Peter & Paul 성당 파견 미사가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무실로 문의 바랍니다.

② 8월 17일(일)은 마우이 공동체 미사(오후 2:30)가 있습니다.

(St. Anthony Church - 1627 Mill St. Wailuku, HI 96793)

③ 고해성사는 미사 전후 고해소에서 있습니다.

④ 미사 참석시 명찰 착용 부탁드립니다.

⑤ 8월 봉성체 안내

8월 봉성체는 8월 21일(목, 오전)에 서쪽지역, 8월 22일(금, 오후)에 동쪽지역에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⑥ 하와이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Taegon Oratory)

방문을 환영합니다.



사목공지

① 2025 하와이 한인 천주교회 봉사자 대상 피정

대상: 모든 신자(신청자)

강사: 권지훈 베드로 주임 신부님

일시: 2025년 8월 31(일), 점심식사 후 12:30(제1강), 1:40(제2강)

② 소공동체 구역장 명단 공지



사목위원회

※와이파후, 카폴레이, 에바, 밀리라니-안린지 마르첼라

※하와이카이- 김정남 글라라 ※필시티,아이에아-김진희 사비나

※카이무키- 황성자 마리아 ※솔렉, 갈리히- 이명노 비오

※알라모아나, 와이키키, 카카오카 - 김정숙 엠마

※기아모쿠, 마노아, 마키키, 칼라카와 - 한동근 세실리아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잘 모르시는 교우께서는 연락 바랍니다.

총구역장-김진희 사비나 808 721 1055

① 연령회 모임 안내

일시: 8월 17일 교중미사 후

장소: 성당

② 꾸리아 월례모임 안내

일시: 8월 24일 교중미사 후

장소: 컨퍼런스 룸

③ 명도회 모임 안내

일시: 8월 24일 오전 9시

장소: 컨퍼런스 룸

④ 하와이카이 구역 모임 안내

일시: 8월 31일(일) 6:00

문의: 김글라라 808 349 2654

⑤ 알라모아나 모임 안내

일시: 8월 23일(토) 오후 6시

장소: 1177 Queen St. #4506

문의: 김정숙 엠마(808-228-0088)



구역 및 단체

※성모승천대축일 꽃 도네이션 감사드립니다

이귀복 데레사

기타공지

※ 10월까지 날씨 관계로 제대꽃은 화분으로 대체합니다.



헌금

9월 6일/7일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 를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8월 9/10일 : \$7,032				지난주 미사 참례자 수	총 330명
	주일헌금	교무금	2차 헌금	특별헌금		
	\$3,385	\$3,290	-	\$357		

Business Insurance Service, Inc 보험 컨설팅, 상가·집·자동차 보험 사도요한 김형섭 /599-9810, 592-5011	이한주 마태오 재정설계 상속, 절세, 롱텀케어, 생명보험, 연금, 학자금 carlitos3840@gmail.com 213-321-8787	뷰티터치 (BEAUTY TOUCH) 한국 화장품 종합 백화점 문의: 임영림 안나 Tel:(808)271-4802
쥬에이스원글로벌 (사슴태반 전문기업) “당신의 건강과 아름다움을 지켜드립니다” youngminina@gmail.com 문의:류영미 마리아막달레나 808-398-1275	Ginzawon (긴자원) Korean B.B.Q (Waikiki) 문의: 김태영 안토니오 808-220-0768 808-922-3387	묘지매매 묘지: Korean Memorial Garden Lot 39 Section B Sites 1,2,3,4 (판매) 가격 절충 가능 문의: 심소영/ 808-798-5100

희년 특강 [제6강: 희망과 기도]

이스라엘의 예언자 중 요나는 주님의 부르심을 피하고 하느님의 구원 계획에 봉사하기를 거부했던 예언자입니다. 하느님은 이 요나 예언자를 통하여 ‘용서하시는 하느님의 자비’에 대하여 가르침을 주십니다. 요나는 변방인 니네베로 보내지는 밖으로 나가는 예언자입니다. 그러나 니네베는 이스라엘에게는 위협적인 적이었습니다. 그 도시에 나아가 설교하도록 불림을 받은 요나는 주님께서 그들을 용서하고자 하시는 열망을 알고 임무를 피해서 도망가기를 택합니다. 도망친 예언자는 죽음과 위험 앞에서 기도로 표현되는 희망에 대해 이교도들과 니네베 주민들의 행동을 만나게 됩니다.

이교도들의 죽음 앞에서의 행동은 인간이 자신의 연약함과 구원에 대한 필요를 온전히 경험하게 됨을 보여줍니다. 죽음에 대한 본능적인 공포는 생명의 하느님 안에서 희망할 필요성을 드러냅니다. 그들에게 임박한 죽음은 그들을 기도로 이끌었고, 예언자가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들을 위해 희생하며 봉사하는 자신의 사명을 살게 했습니다. 이교도들은 또한 죽음에 대한 진실한 두려움으로 참 하느님을 인정하고 제물을 바치며 서원을 합니다. 죽지 않기 위해 그들을 기도로 이끌었던 희망은 그들이 희망했던 그 이상의 현실을 이루게 됩니다. 그들은 폭풍속에서 멸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의 유일한 주인임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후에 니네베의 주민들도 파멸될 위기 앞에서 하느님의 용서에 대한 희망에 이끌려 기도합니다. 그들은 참회하고, 주님을 부르짖으며 선장처럼 희망의 목소리를 낸 왕을 시작으로 주님께 돌아섭니다. “하느님께서 다시 마음을 돌리시고 타오르는 진노를 거두실지 누가 아느냐?”. 그러면 우리가 멸망하지 않을 수도 있다.” (요나 3, 9) 폭풍속의 선원들처럼 그들도 죽음에 직면하고 구원받은 경험이 그들을 진리로 이끌었습니다. 이처럼 하느님의 자비 아래, 이 파스카 신비의 빛 아래에서, 죽음은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가 말한 것처럼, “우리의 자매인 죽음”이 될 수 있으며, 모든 인간과 우리 각자에게 희망을 알고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를 희망 가운데 진전하게 하고, 상황이 어두워질 때는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 그러면 더 많은 희망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추천영상: youtube 병근병근신부 희년특강



알아두시다

옥 치과 일반치과, 신경치료, 응급치료 메디케어 제공 / 808-946-2875	동양관광여행사 항공권도매/섬일주/이웃섬 관광/호텔예약 944-3949/info.orient1988@gmail.com	브라이언 오토 바디샵 자동차바디수리·보험처리/친절상담 홍 프란치스코 / 836-5887
김남훈(베드로) CPA 회계감사, Book Keeping, 세금보고 947-2470	New York Life 은퇴연금/학자금/재산증식/무료상담차 그레고리오 / 226-3344	마마우 바비큐(타운에 위치) 케이터링, 가족행사, 각종 큰 행사 음식전문 예로니모/808-941-6262, 808-743-8200

하와이 한인 천주교회 사목 방향 (2)



권지훈 베드로 신부
하와이 한인 천주교회

II. 화해와 일치를 위해 노력하는 공동체 “너희는 서로 사랑하여라.” (요한 13,34)

예수님께서서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는 오해, 갈등, 비난, 상처가 자주 일어나며, 그로 인해 공동체는 나뉘고 신뢰는 무너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의식적으로 화해와 일치를 향해 나아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작은 실천은 단순한 행동 이상의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그것은 우리 공동체가 분열의 문화가 아니라, 화해와 일치의 문화를 선택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1. 용서와 화해 주간을 정하여 일주일간 상대를 위한 묵주기도 바치기

기도는 단지 입술의 행위가 아니라, 마음을 바꾸는 은총의 시간입니다. 상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내가 먼저 마음을 열고, 치유와 화해를 하려는 첫걸음이 됩니다.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이 있다면, 일주일간 하루 한 단 묵주기도를 그 사람의 평화를 위해 바쳐 보세요. “용서하고 싶지만 어렵다”는 마음이 들 때, 내 감정보다 하느님의 자비에 맡긴다는 자세로 기도해 보세요. 결론적으로 죄악성을 뽑기 위해서는 철저한 자기 성찰과 진실한 회개, 고치고 변화시키려는 결심과 훈련, 완전히 뱉힐 때까지 의지의 노력, 간절한 기도가 필요하다.

2. 사실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들을 옮기지 않기

공동체 안의 불화는 대부분 추측이나 소문에서 비롯됩니다. 확인되지 않은 말을 옮기는 것은 자칫 거짓 증언(십계명 8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렇다더라” 식으로 옮기기 전에, “사실인가?”,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가?”를 먼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소문을 차단하는 사람이 될 때 공동체의 평화를 지킬 수 있습니다.

3. 비난하기보다 먼저 이해해주고 들어주기

우리는 쉽게 판단하고, 속단하고, 정죄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우리를 판단보다 먼저 이해와 자비로 대해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에게 그렇게 해야 합니다. 누군가 실수를 하거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바로 지적하기보다 먼저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마음속으로 한번 중얼거리며 받아들이 보세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해줄 수 있어요?”라고 조심스럽게 물어보고 귀 기울여 듣는 태도를 가져보세요.

4. 주님의 눈, 귀, 입, 마음으로 형제자매들과 함께하기

그리스도인은 단지 좋은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고, 마음으로 느낀다면 우리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 ◎ 주님의 눈으로 보기: 사람의 겉모습이나 실수보다 그 안에 있는 하느님의 형상을 먼저 바라보기.
- ◎ 주님의 귀로 듣기: 불편한 말, 상처 주는 말에도 그 사람의 아픔과 외침이 있는지 귀 기울이기.
- ◎ 주님의 입으로 말하기: 누군가를 낙담시키는 말이 아니라, 위로하고 세워주는 말을 선택하기
- ◎ 주님의 마음으로 느끼기: 내가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공감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기.

ARBOR Financial Group NML#
236669

심소영: 주택융자담당
Tel: (808) 798-5100
Email: sharis@arborfg.com

최 니콜 부동산

Locations, LLC Cell 225-5566
www.ChoiHawaii.com
nicole.choi@locationshawaii.com

메디케어 보험

(65세 이상 및 장애인)
한국어, 영어 가능(심 크리스티나)
Shari Shim / 798-5100

메리장 가정의학 클리닉

내과, 소아과, 산부인과 진료합니다
예약전화 808-941-7799

A'ALA Meat & Seafood Inc

문의전화 808-452-8473 서삼열 사무엘
samseo@aalameatandseafood.com

보나 최 부동산

문의 전화 808-636-5217
bona.choi@cbpacific.com
Coldwell Banker P.P.

